박유천

진화하는 '팬덤'

'박유천 도서관' '유노윤호 장학금' '티파니 숲' 등
스타 팬클럽, 생일·데뷔 기념일 등에 선물 대신 나눔
한지혜·소녀시대 이름으로 캄보디아에 우물 기부도

유노윤호

팬클럽이 진화하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기부를 통해 선행을 펼치는 등 사회에 따뜻한 나눔 바이러스를 퍼트리고 있다.

팬들의 가장 큰 행사인 스타의 생일이나 데뷔 기념일, 콘서트, 드라마 제작 발표회 현장 등에 고가의 선물을 보내는 '조공' 대신 최근에는 스타의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중이다.

형식도 다양하다. 가장 보편적인 건 각종 복지 관련 재단에 기금을 기부하는 것. 또 숲을 조성하고,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도서관을 만들기도 한다.

최근 신안군 흑산도에 '박유천 도서관 2호점'이 문을 열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팬 커뮤니티 '블레싱유천'이 창단 4주년을 맞아 오픈한 공간이다.

지난해 신안군 장산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박유천 도서관 1호점'을 열었던 '블레싱유천'은 올해 현금 1000만 원과 책 6600여 권을 기증해 2호점을 개관했다. 2호점은 도서관, 공부방 기능과 함께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 영화관으로도 운영된다. '블레싱유천'이 소아암 어린이 돕기 등을 통해 전달한 성금은 4년간 총 1억5000여 만원에 이른다.

광주 출신인 동방신기의 유노윤호 팬클럽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광주 지역에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일본 팬 사이트 '정윤호 팬블로그 링원'은 매년 그의 생일을 맞아 유노윤호의 모교인 광일고와 임곡중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용진 육아원 등 사회복지 시설에도 기부하고 있다.

신안군 흑산도에 문을 연 '박유천 도서관' 2호점

일본팬들은 유노윤호가 오랫동안 모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고가의 생일선물 대신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기부 누적액은 8200만원에 달한다.

또 지난해에는 13개국 팬들이 쌀 12.62t을 광주에 기부했으며 최근 MBC 드라마 '야경꾼 일지' 제작 발표회에서 23개국 팬들이 기부한 쌀 역시 광주를 비롯, 10개 도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다. 이날 기부된 쌀은 총 32.5t으로 역대 최고 규모였다.

빅뱅 태양의 팬클럽 '너는 태양 나는 달'은 태양의 생일이 5월 18일인 점에 착안, 5·18을 알릴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해 달라며 5·18 기념재단에 518만원을 기부했다. 재단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개하는 중등용 교과서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다.

세월호 피해자를 돕기 위한 팬들의 행보도 이어졌다. 장근석, 이준기, 아이유, 엑소 등의 팬클럽이 성금 모금을 진행,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체육관에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스타 이름을 딴 '스타숲'도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해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소녀시대 티파니의 팬들이 생일을 기념, '티파니숲'을 조성한 후 '인피니트숲', '소녀시대숲', '엑소숲' 등이 만들어졌다. 이곳은 현재 총 3400㎡(1150평) 규모에 3800그루가 자라는 숲으로 변신했다.

최근에는 서태지 팬클럽 '서태지 매니아'가 서태지의 득녀 소식에 맞춰 미혼양육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34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팬들의 기부는 해외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7월 4일 그룹 비스트의 윤두준 생일을 맞아 팬클럽이 캄보디아에 우물을 기증했으며 한지혜, 소녀시대, 틴탑 니엘 등의 이름으로 우물이 만들졌다. 또 이민호의 중국 팬클럽 '미즈노 차이나'는 중국 내 빈곤 아동을 위해 이민호 도서관을 세웠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알립니다

'언론계 공동 재난보도준칙' 제정·시행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언론의 취재·보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5개 단체는 관련 보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재난보도준칙을 공동 제정해 9월 16일 선포하였으며, 본사도 여기에 동참해 준칙을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본사는 이 준칙의 실천을 바탕으로 더욱 품질 좋은 보도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9월 17일
한국신문협회·광주일보
▶관련기사 22면

나주서 멸종위기식물 '가시연꽃' 군락지 발견

전남산림자원연구소, 탐색 성과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16일 "희귀·특산식물 보존 및 복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남지역 희귀·특산식물 조사를 하는 도중 나주에서 가시연꽃(멸종위기식물 Ⅱ) 군락지〈사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가시연꽃'은 오래된 수심이 낮은 저수지나 연못에 자라는 수생성 한해살이풀로 전체에 가시가 밀생하며 잎이 원형으로 물위에 뜨며 지름이 30~120cm로 대형이다. 꽃은 7~8월에 가시가 돋은 화살촉 모양의 긴 꽃줄기가 올라와 끝에 1개씩 달리며 꽃잎은 자주색이다.

일본, 중국, 러시아에 분포하며 우리나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지만 전남에서는 장흥, 담양에서 발견된 바 있다. 그러나 생육지가 대부분 마을 주변으로 개발되거나 수질오염 등의 원인으로 자생지가 최근에는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발견된 가시연꽃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희귀·특산식물의 현지내 보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에서 '전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및 보전전략'연구과제로 발견한 성과다.

지난 5월과 7월에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광릉요강꽃'(멸종위기종 Ⅰ급)과 '나도승마', '세뿔투구꽃', '지네발란'(멸종위기종 Ⅱ급)등 멸종위기식물을 발견했다.

또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에서는 남서해안 지역에 자생하는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유전자원 보존과 복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전남지역 희귀·특산식물 전시·보존원을 조성해 희귀식물 멸종위기종(CR) 금새우난초, 나도승마, 석곡, 지네발란 등 7분류군, 위기종(EN) 9분류군, 취약종(VU) 21분류군, 약관심종(LC) 16분류군, 자료부족종(DD) 2분류군, 특산종 7분류군 등 총 62분류군을 식재·전시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하루 한갑 흡연시 年 세금 121만원

담뱃값 2천원 오르면 세부담 2배…"9억원 주택 제산세 수준"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고가주택의 재산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641원에서 2.14배로 증가한 121만1070원에 달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인상된 담뱃세가 시가 약 9억원 수준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라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고시된다. 현재 기준시가 6억8300만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하루 담배 한 갑 흡연자가 연간 부담하게 될 금액인 121만1070원과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또 연봉 4745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9411원과 맞먹는 금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시급으로 일하는 연소득 1000만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연간 내는 담뱃세가 연간 4745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납부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꼴이다.

이에 따라 담배가격이 올라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가격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르면 이런 간접세 비중이 12%포인트 증가한 74%가 된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되면 2조8000억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담배 출고가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의사-환자 원격의료 이달말부터 시행

복지부, 전남 등서 시범사업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전남을 비롯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이달 말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어려워 현재 참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과 서울, 강원, 충남, 경북, 전남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관찰과 상담 위주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이달 말 먼저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준비기간을 거친 후 도서벽지와 특수지를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까지를 포함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10월 중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과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하며, 이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온 환자 가운데 본의 동의를 거쳐 1200명 가량이 참여할 예정이다.

원격모니터링의 경우 고혈압·당뇨 등의 재진환자들이 혈압과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가 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기적으로 원격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